

# 미 해군의 아시아 태평양 해양안보 전략에 대한 연구

전은선 · 고경민 · 박태용

호원대학교

## A Study on the Asia-Pacific Security Strategy of the U.S. Navy

Eun-seon Jeon · Kyung-min Go · Tae-yong Park

Howon University

E-mail : maiuy1851@naver.com

### 요 약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중국해 연안 국가 간 영토 분쟁,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중국의 랴오닝급 항공모함 건조 등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북한의 상황,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통한 A2/AD(Anti-Access/Area Denial,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등으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전략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변경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전략과 미 해군 전력의 재배치 계획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고, 변화된 주변 환경이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 ABSTRACT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is rapidly changed because of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near the East China Sea, North Korean nuclear bomb tests, long-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ing tests frequently and deployment of Chinese Liaoning class aircraft carrier. Especially,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of North Korea and Chinese A2/AD strategy by strengthening naval forces are the cause of replanning Asia-Pacific security strategy of Unites States. In this paper, it is surveyed and analyzed that changed Asia-Pacific security strategy of U.S. and rearrangement plan of U.S. Naval forces. And changed environmental situation influence on our security is analyzed.

### 키워드

해양안보, 미 해군, Maritime Security, U.S. Navy

### 1. 서론

동북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해양적 특성이 두드러진 지역이어서 역내 안보환경에서 해양이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탈냉전 시기에 확대되는 전략적 불확실성과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의 다발적 부상은 역내 국가들이 협력보다는 대립적 시각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지속적으로 해군력을 확충하고 있다[1]. 한국, 중국, 일본이 바다로 접해 있는 동북아시아는 근현대사의 경험을 통해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배타적 민족주의를 발전시켜왔고, 역내 국가들 간의 섬들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다[2].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자국의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행사하고 과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해양 우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랴오닝급 항공모함 건조, 항공모함 공격용 탄도미사일 배치 등 미국에 대한 A2/AD(Anti-Access/Area Denial,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 하는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 북한은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시험, 30mm 함포와 공격형 어뢰를 탑재한 신형 함정인 VSV(Very Slender Vessel)의 작은 NLL 출몰[3],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발사 시험, 2014년 4월 열병식에서 처음 모습을 보여 세계적으로 주목 받은 S-300급 KN-08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등의 무기체계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4]. 일본은 지난 9월 19일에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전후 70년 동안 지켜온 평화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5].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시아 주변 강국들의 군비증강과 도발적 양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 II. THAAD 배치 논란과 아시아 태평양 상황

북한은 한반도와 일본, 괌은 물론 미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이미 개발하여 배치하였다. 게다가 이미 개발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 하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경우 동북아 정세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기 운용 중인 PAC-2에 이어 PAC-3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주한 미군에서는 이미 PAC-3를 배치하였다. 그러나 중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인 PAC-3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탄도미사일 비행 중말단계 중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배치가 조심스럽게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국가는 미국이 THAAD를 통해 미사일방어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데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6]. 특히 THAAD를 구성하는 체계 중 AN/TPY-2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2,000km에 달하여 THAAD 포대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중국 본토에 배치된 탄도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탐지 및 추적할 수 있게 되고, 중국은 미국 본토 및 일본, 괌 등에 대한 중국의 억제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없는 THAAD 배치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III. 태평양에 대한 미 해군 전력 강화

냉전 이전의 미국의 안보환경은 공산권 세력을 포위하고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에 있었으나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은 바뀐 안보환경에 맞게 세계적 수준의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도전 가능성으로 판단하여 미국의 해군 군사력 운용의 중심축을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조금씩 이동시키고 있다[7]. 현재 G2라 불릴 만큼

무서운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은 2015년 GDP 규모면에서 11조 달러를 넘어섬으로써 18조 달러를 기록한 미국에 이어 세계2위를 기록하고 있다[8]. 더욱이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5년 현재 1천500억 달러, 약 179조 원으로 미국에 이어 2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급격한 해군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 중국은 잠수함 전력을 현대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현재 5척의 공격용핵잠수함(SSN), 4척의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SSBN), 그리고 53척의 공격용잠수함(SS)을 보유하고 있다[9]. 또한 지금까지 중국 해군은 근해적극방어 전략(Offshore Active Defence)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국방백서를 통해 '원해호위'를 공식 전략 개념에 추가함으로써 해군의 활동영역이 제2도련선(일본-괌-호주를 잇는 선) 밖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9]. 중국의 전략에 대비하고자 미국은 2012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2020년까지 태평양과 대서양의 해군 전력을 50대 50에서 60대 40으로 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10]. 미국은 국방예산 절감에도 아시아 태평양에 우선순위를 둔 전략으로 201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건조 중인 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를 태평양에 배치해 태평양 항모전단을 5척에서 6척으로 늘릴 것으로 보이며, 싱가포르에 파견 중인 연안전투함(LCS)을 순환 배치하고, 구축함과 수륙양용함의 수도 늘릴 계획이다. 역내 우방국의 안보불안 해결과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해군 전력을 강화하고 탄도미사일 감시 및 추적용 AN/TPY-2를 추가 배치하며 미군의 전체적인 병력 감축에도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필리핀과 태국에 차세대 대잠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배치하고 호주의 해군기지에 해병대 2,500명을 배치할 전략을 세웠다[11].

## IV. 결 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세력 경쟁을 하는 역내 국가들은 대규모 열병식에서 그들의 위협적인 무기체계와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적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경계해야 하는 지역이자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한 해군력 팽창을 감시하기 위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미국은 국방예산 삭감과 병력의 감축에도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군전력을 강화하고 한국, 일본 등과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군사력 팽창을 시도하고 있는 주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을 직시하고 효율적인 협력 외교와 군사력 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박성용,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 해양 전략과 해군력 증강,” 통일전략, vol.13, no.4, pp.127-169, 2013. 10
- [2] 김태완, “동아시아 해양공동체,” 통일전략, vol.9, no.3, pp.179-215, 2009. 12
- [3] 중앙일보, “북, 시속 90km 스텔스함정 서해 배치 … NLL 근처 출몰,” 2015. 05. 27
- [4] 최현호, “북한군 무기체계 변화 동향,” 국방과 기술, vol.431, pp.22-29, 2015. 01
- [5] MBC뉴스, “日 집단자위권법안 본회의 통과 "전쟁 가능한 나라로," 2015. 09. 19
- [6] 이현경,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구상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통일전략, vol.15, no.2, pp.159-180, 2015. 04
- [7] 신성호, “미국의 신 동북아전략과 군사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vol.57, pp.153-191, 2013. 03
- [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GDP Ranking 2015 | Data and Charts,” 2015. 04.14
- [9] 박창희, “중국\_국부전 발발 시 승리 견인할 군사력 충분해”, 통일한국, vol.379, pp.16-19, 2015. 07
- [10] 조선일보, “미, 2020년까지 해군력 60% 아시아-태평양에 배치,” 2012. 06. 04
- [11] 조선일보, “[G2, 동북아 군사력 경쟁] 美, 신형航母 내년 추가 배치… 亞太전력 강화,” 2014. 03. 06